KRIHS POLICY BRIEF
국토정책 Brief
제386호 2012. 6. 18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민범식(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이왕건(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타이베이시 문화국은 1990년대부터 '문화로부터 일상생활로', '전통으로부터 현대화로', '지역으로부터 세계로'를 내걸고 문화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옴
  - 이와 관련하여 '문화거점사업', '예술페스티벌행사', '예술촌 조성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도시공간 유산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타이베이시 도시재개발사업처는 이와 별도로 도시재생과 결부시켜 문화활동 기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도시재생전진기지'를 추진
- 이러한 문화사업의 대부분은 시가지 내 공공기관 이전적지나 보전해야 할 근대건축물 등 기존 도시공간 및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임
  - 기존 시가지 내에 산재된 공공건물과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접근성, 지역의 정체성, 문화공간 확보 수월성 등의 효과를 얻고 있음

| 정 | 책 | 적 | 시 | 사 | 점 |

1. 일상성 확보: 기존 시가지 내 건물과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의 생활 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소성 유지: 지역사회 형성의 기반이었던 공공기관 이전적지나 근대건축물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
3. 소규모 공간 조성: 공공기관 이전적지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분산배치로 주민이용이 쉽도록 함

1.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시의 도시재생정책

타이베이시 문화기반 도시재생정책(2000~2010)[1)]

■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체험 실천

- 1999년 문화사업 추진단을 설립하여 “문화로부터 일상생활로”, “전통으로부터 현대화로”, “지역으로부터 세계로”를 목표로 사업추진
- 2003년 문화창조산업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일상생활 속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 문화자산을 젊은 예술가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 2007년 타이베이시 문화시설개발재단, 타이베이 문화재단(TCF) 등의 추진조직을 강화하고 문화창조산업의 요소인 자본, 재능, 조직구성과 장소형성을 종합적으로 추진

■ 문화활동 일상화를 위한 공간결합

- 2010년에 들어서면 도시개발, 도시마케팅전략과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문화허브’, ‘창조클러스터’, ‘문화권역’이라는 공간개념이 도입됨
- 문화활동의 일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자연스레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 이전적지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커뮤니티 활력을 증대시켜 도시재생으로 연결

［표 1］ 타이베이시 문화자산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접근

전 략	형 태	사 례
문화거점	• 문화생산과 소비의 혼합 •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는 복합적 활동 수용과 교육을 즐길 기회	• 시먼홍루(四門紅樓) 문화와 창조산업파크
예술페스티벌	• 페스티벌 기간에 국내외 예술 거래 • 페스티벌 장소에 공공미술을 창조하고 문화활동을 도입	• 타이베이 영화 페스티벌 • 타이베이 미술 페스티벌 • 타이베이 어린이미술 페스티벌 • 타이베이 변방미술 페스티벌
예술기지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	• 커뮤니티 속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의 장기체류 예술촌 조성 • 정부지원 비영리민간조직에 의한 문화와 비즈니스 활용성 결합	• 타이베이 예술촌 • 보장암 예술촌 • 초산예술촌 • 도심부의 도시재생전진기지(URS) • 창조구역을 위한 I-타이베이 프로그램
도시공간의 유산화	• 문화자산을 도시재생도구로 이용 •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재생 목표를 달성 • 영화장면이 되도록 문화자산을 활용	• 보피랴오 고건축물 역사지구 • 설탕산업문화공원 • 사사남촌(四四南村) 군부대 이전적지
거대프로젝트	•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대행사 추진	• 2010타이베이 국제화훼엑스포 • 2011 IDA 회의

1) Chien-yuan Lin et al. An Assessment of Cultural-led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in Taipei. 2011 ASPA Congress.

2.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문화거점 조성: 시먼홍루(西門紅樓)

■ 시먼홍루의 시민문화공간화

- 시먼홍루는 1908년 타이완 총독부가 건립한 최초의 공영시장으로 현재까지 온전히 보존된 3급 고적(근대문화유산) 시장임
- 건물은 팔각루를 중심으로 십자형 구조로 팔괘의 동양사상을 표현하였다고 하며, 팔각루에서는 경극, 만담 등을 하였고, 1960년대에는 24시간 영화상영관으로 이용
- 1990년대에 들어 건물은 쇠락하기 시작하였지만, 1997년 3급 고적으로 지정하고 이어 2007년 타이베이시 문화기금회가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본격 리모델링함
- 2010년에는 문화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예창작 꿈의 부화(孵化) 기지'라는 표어로 16개의 공방을 입주시켜 예술창작품이 바로 시민들에게 감상되고 판매되는 장소로 조성
- 구도심 내 시장이라는 위치적 이점과 고급스러우면서도 대중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도입은 장소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을 활기 있게 만드는 기회로 이어짐

■ 시민에 접근하는 문화거점사업

- 시먼홍루를 문화활동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성공한 것은 서울의 명동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에 힘을 입은 바가 큼
- 그러나 동시에 근대건축물이라는 역사적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차별적인 품격을 갖춰 예술가들과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
- 단순히 문화전시관만이 아니라 창작기지와 이벤트광장을 둠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창작활동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소의 활력을 증대시킴

[그림 1] 도심부 근대건축물(시먼홍루)을 활용한 창조기지 확보

내부역사전시관(1층)

문예창작 꿈의 부화기지(2층)

이벤트광장

도시공간의 유산화

■ 보피랴오(剝皮寮) 고건축물 역사지구

- 청나라 시대부터 노동자 위락거리로 형성되어온 항만지역으로 현재까지 원형에 가깝게 거리 및 고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음
- 기존 상인들은 도시정비 후 위락거리에 다시 입주하기를 바랐으나, 인접주민과 학교의 반대로 다른 용도로 정비하게 됨
- 타이베이시는 고건축물을 활용하여 창작전시, 영화촬영공간, 생활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장소적 전통을 유지

■ 사사남촌(四四南村) 군부대 이전적지

- 중국본토의 국민당 정부군이 이동하여 타이베이에 주둔한 부대 이전적지로 1981년부터 부도심현대화계획에 의거하여 타이베이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 이전적지에는 대부분 타이베이101 랜드마크 건물과 컨벤션센터, 도심고급아파트단지 등이 건립되었지만, 일부는 군인들이 살았던 생활상을 전시하는 공원으로 조성
- 낡고 허름하지만 소박한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주택 일부를 보존하고, 부도심 내에 당시의 역사적 실태를 보전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적 장소성도 유지

［그림 2］ 근대유산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의 정체성 보전과 문화체험공간화

전통위락거리를 문화전시공간으로 재생(보피랴오 역사지구)

도심부 군인숙수를 보전한 생활사공원 조성(사사남촌군부대이전적지)

설탕공사 이전적지를 '설탕산업문화공원'으로 조성

■ 설탕산업문화공원(糖廊文化園區)조성

- 1908년에 건설된 타이완총독부 전매국 소속의 설탕사업소가 전후 1945년에 국영기업체인 타이완설탕공사로 바뀜
- 타이완설탕공사는 외곽으로 이전하였지만, 이전적지는 설탕산업 전시관과 타이완 경극단인 민화유안의 사무실 및 리허설 장소를 포함하는 지역공원으로 제공
- 각종 전시와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거의 철도차량, 설탕공장, 거주지를 함께 보전하여 지역적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함

•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설탕산업문화공원 또한 전시공간의 관리와 해설안내 등을 지역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맡아 운영하고 있음

예술가와 마을의 만남: 예술촌 만들기

■ 예술촌 조성과정

• 타이베이 예술진주(藝術進駐, Arts-in-Residence Taipei)는 기존 커뮤니티 속에 만든 예술촌으로 타이완 예술가와 외국 예술가의 교류 및 지역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됨

• 현재 타이베이시에는 타이베이국제예술촌(Taipei Artist Village: TVA), 초산(草山)국제예술촌(GAV), 보장암국제예술촌(THAV) 등 3개의 예술촌이 조성되어 있음

■ 보장암국제예술촌(寶藏巖國際藝術村,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 보장암지구는 대륙에서 건너온 피난민들이 하천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살던 곳으로 점차 거주자들이 노령화하면서 쇠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자들을 입주시킴

• 잔류희망 주민은 그대로 둔 채, 퇴거희망자는 타이베이시가 보상하여 이주시키고 남은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토속적 생활풍경을 유지하여 예술촌 경관을 만들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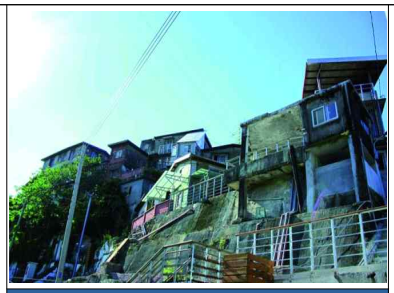
• 노령화한 잔류주민들과 새로 들어온 젊은 예술가들이 교류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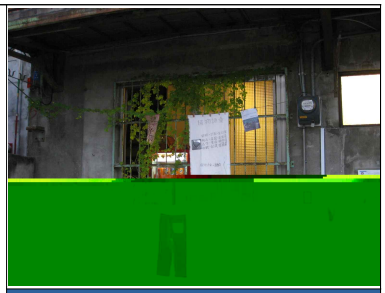
• 입주예술가들에게 특정한 성과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문화의 일상화를 위하여 주변 주민들이 쉽게 예술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전시와 축제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예술가들은 지역사회를 형상화한 작품을 만들거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음악이나 연극 등의 공연을 열도록 권장 받고 있음

［그림 3］퇴락한 주거지를 활용한 지역 속 예술촌 조성

보장원국제예술촌 전체그림


하천변 피난민 거류지로서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한 모습


리모델링하여 예술가가 입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전진기지 만들기(URS: Urban Regeneration Station)'

■ 도시재생전진기지 조성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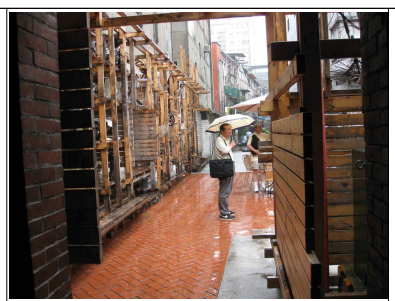
- 앞서 설명한 것이 문화국사업이라면 도시재생전진기지(URS)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시재개발사업처가 프로젝트를 담당
- 도시재생전진기지는 도시재생, 문화창조, 장소성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의 플랫폼이자 정보교류거점이며, 일하는 장소이자 지역커뮤니티공간이 됨
- 도시재생전진기지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이라면 누구든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 이전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전진기지로 조성

- URS13: 주석접시공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여가와 공연을 위한 팝음악장소 등 다중이용공간으로 개조됨
- URS21: 1930년대 건축된 담배전매공사 이전적지로서 장소이미지를 지역의 상징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
- URS27: 1989년 철도지하화로 버려진 지상부의 철도플랫폼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대형 녹색지대의 문화전시공원을 형성
- URS44, URS127: 청나라 시대부터 조성된 바로크와 모더니즘의 절충식 건물이 남아 있는 디화가(迪化街) 전통시장거리(건어물과 약재상)를 보전하고 일부 건물은 매입하여 예술전시공간으로 만듦(디화가의 77개 근대역사건물 중 44번지와 127번지 가게를 매입하여 갤러리로 사용)

[그림 4] 도시재생전진기지(URS) 조성 사례

바로크형 건축물을 보존하여 활용한 URS 44



거리와 직접 개방된 URS 127

URS 127의 내부전시물로 남강대학 건축학과가 운영 중

3.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 평가와 시사점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 평가

- 문화거점 전략
  - 구도심 내부에 위치한 시먼홍루 등의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전시와 창작활동, 공연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주변 활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
  - 주변 광장에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젊음의 거리가 형성되고 있음

- 커뮤니티예술촌 개발 전략
  - 타이베이의 예술촌 사례는 기존 커뮤니티 속에 예술가들의 거주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하게 하면서 주변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아직까지 지역활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서서히 지역주민과 교류협력하면서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 도시공간 유산화 전략
  - 역사적 건물을 활용하는 정책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나, 타이베이의 사례는 공공건물 이전적지 일부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음
  - 동시에 기존 시가지 내에 예술활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생활 속의 도시재생전진기지
  - '도시재생전진기지' 조성사례도 도시공간유산화 전략과 마찬가지로 공공이전적지 등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일상의 거리에서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만들고 있음

타이베이시 사례에서의 시사점

- **일상성 확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 타이베이시 문화국은 문화활동 공간을 대규모화하여 도시외곽에 배치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행태와는 달리 주민에 파고드는 접근방식을 채택함

- **장소성 보전**: 지역 커뮤니티의 정체성 기반이었던 생산공간을 보전
  - 과거 정부공사들에 의해 형성된 근로자 마을을 생활유적지(설탕산업공원, 담배공사, 사사남촌 등)로 보존하여 지역의 전통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

- **공공자산활용**: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추가 재원 없이 문화공간을 조성
  - 대부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공공기관의 이전적지를 활용하거나 정부재산을 재활용하는 형태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공사 자산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새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대규모보다 소규모 공간으로 확보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 **지역참여 · 분담**: 지역참여를 기본으로 상호 협력하며 분담관리
  - 설탕산업문화공원, 도시재생전진기지 등과 같이 인접대학이 관리하거나 주민들로 구성된 안내원이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등 지역사회가 유지 · 관리를 맡음

국토연구원 민범식 도시연구본부장 (bsmin@krihs.re.kr, 031-380-0253)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wglee@krihs.re.kr, 031-380-0242)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홈페이지 www.krihs.re.kr

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KRIHS